


설 화답송 [음 1월 1일]

시편 90(89), 2와 4. 5- 6. 12- 13. 14와 16

(후렴)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



1.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
 누리가 생기기 전 - 에

2.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
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 - 고

3.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 소 - 서.

4. 아침에 당신 자애로
 저희를 채워주 소 - 서.

영원에서 영원까지
 당신은 하느님이시 읊 니 다.

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 읊 니 다.

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 리 이 다.

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
 즐거워 하리 이 다.

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 - 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 읊 니 다.
아침에 돌아나 푸르렀 다 - 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 나 이 다.
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 리 이 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 소 - 서.
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 에 - 게,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
위에 드러 내 소 서.